

지역 매 아리

부안군, 핵심제도 안내 책자 발간

부안군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중에서 군민이 꼭 알아야 할 핵심사항만을 간추려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를 발간 배포했다.

이번 책자는 부안군정 전 분야에 걸쳐 총 50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분야별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어 군민들이 더 쉽게 신규 변경되는 제도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와 교육·문화, 농·축·수산, 일자리·경제, 건설·안전·환경, 지방세 분야 등 6개 분야 50개 사업으로 정리돼 있다.

부안군은 이번 안내 책자를 읍면 연초방문 시 배포할 예정이며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부안군 임원택 기획감사실장은 "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꼼꼼히 알아둔다면 생활 속에서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군민들이 이를 알차게 활용하고 최대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양봉산업 활성화 나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양봉산물 수입 확대와 폭염·병해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봉기자재와 화분(꽃가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읍시에서는 총 249농가에서 2만9,073군의 양봉을 사양 중이며, 이중 113농가에서 50군 이하를, 136농가에서 51군 이상의 양봉을 활발하게 사양하고 있다.

군민 지원사업은 체밀량 증대와 벌꿀 품질 고급화를 위한 양봉기자재인 소초광(인공벌집틀)과 꽃가루 수확량이 적은 시기에 단백질 대용식인 화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초광과 화분 지원 사업은 양봉 30군 이상 사육농가가 대상이며, 보조금 50%와 자부담 50% 방식으로 시행된다. 제품 구입은 양봉농가가 선호 제품을 공동 구매하거나 개별 구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시에서는 상반기 안에 조기 구입토록 하여 재정의 신속집행과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소초광 4,476상자(20개 들어)와 화분 1,344상자(20kg들어)으로 총 3억9,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지는 신청 시에 지방세·세외수입 등 각종 제세공과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2018년 동일 사업 선정 후 포기자는 동일 사업 신청이 불가능하다. /정읍=김대환기자

삶의 여유 찾는 정읍의 힐링공간

벚꽃로에서 천변로 영화아파트 연결 다리 연장 27m 4차선 2020년 완공 예정

매년 봄이면 화사한 자태로 전국 상춘객들을 유혹하고 있는 정읍천의 벚꽃로와 천변로 영화아파트를 연결하는 다리(가칭 영화교, 이하 영화교)가 만들어진다.

정읍 시가지는 동서로 가로지르는 정읍천을 따라 달리는 벚꽃로는 수령 40년 넘는 왕벚나무 수백그루가 매년 4월초면 일제히 화사한 꽃망울을 터트리 봄 나들이객들을 맞는 정읍의 명소다. 벚꽃로와 마주한 천변로 역시 수백 그루의 벚나무가 심어져 일대 주택, 상가 등과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심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풍광을 살린 다리를 만들어 생활권의 기반시설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읍 도시의 색다른 관광명소로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영화교는 2020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총사업비 80여억원이 투입되며 길이 73m, 폭 35m의 4차선 차도와 같이 27m, 폭 7.5m의 아치형 전망 공간을 갖추게 된다. 시는 이날 중 실시계획을 마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영화교는 정읍천을 가로지르는 다리 중 8번째로 건설되는 다리이다.

시는 영화교가 완공되면 서부산업도로의 연속성 확보는 물론 시가지



정읍 벚꽃로에서 천변로 영화아파트 잇는 다리.

중심으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 교통 체증 해소와 함께 물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일대 벚꽃과 야경 등과 어우러져 관광객들을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 기대했다.

유진섭 시장은 "도심을 흐르는 정읍천에 세워지는 다리는 기능 위주의 단순한 다리가 아닌 시민들께서 삶의 여유를 찾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healing)공간이자 정읍의 색다른 멋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러한 특성에 맞는 다리 이름을 붙이기 위해 정읍시민을 대

로 명칭 공모에 들어갔다. 마감은 이달 31일까지이고, 명칭에는 단순한 다리가 아닌 볼거리와 즐길거리, 상징성이 있는 다리라는 의미를 담으면 된다.

응모방법과 양식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접수는 이달 31일 오후 6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우편 또는 이메일(song3605@korea.kr)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2월 중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을 선정,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도시재생과(☎ 539-579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실시간 확인 가능한 선진교통시스템 구축

고창군,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주요 승강장 20개소 우선 추진

고창군 주민과 관광객이 더 편리한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사업비 3억 9000만원을 들여 연말까지 시내버스 도착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광역버스 정보시스템(BIS)'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이란 '버스도착알리미'가 없는 승강장 이용객에게 버스 도착 예정시간 및 노선 정보 등을 안내해 준다.

군은 연말까지 20개 정류소 안내기와 버스 통합안내기, 자동승객계수장치, 통합BIS센터 등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2020년

초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버스 대기시간이 크게 줄고 군과 운수회사는 합리적 대중교통 정책 수립과 버스운영관리를 최적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서 군은 2015년 1000원 택시를 도입하고, 지난해에는 버스요금을 단일화해 노약자와 산간 오지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진교통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등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행복콜버스와 콜택시 등 수요자 중심의 교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변화하는 농어촌 대중교통 수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사회적경제기업, 상생경제 구축 힘 보탠다

고창군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민선 7기 고창군의 '함께 살리고 잘사는 상생경제' 구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지난 15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나눔과 봉사'를 주제로 '고창 만들기'라는 주제로 '고창군 사회적 경제기업' 대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원기업, 협동조합 등 각 분야 대표 20여명이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기업간의 소통과 협력, 착한 일자리 창출 등을 두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이날 사회적 경제기업들은 민선 7기 고창군의 '함께 살리고, 잘사

는 상생경제' 정책에 공감하고, 협의회를 구성해 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했다. 또 고창사람 채용하기, 고창물건 팔아주기 등 '자랑스런 고창만들기' 군민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군은 사회적 경제기업 주요 생산품 판매행사와 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판로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대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유기상 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과 관내 중소기업들간의 소통과 상생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을 경청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 특화가공 소금, 인지능력 개선 효과 '관심 집중'

특화 열처리 가공염 개발 · 천일염 복합산업화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 가져

고창군의 특화가공 소금이 인지능력 개선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 식품소재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지난 15일 오후 2시 람사르고창갯벌센터 회의실에서 고창 천일염의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한 '특화 열처리 가공염 개발 및 천일염 복합산업화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과업을 맡은 목포대 천일염연구센터는 "고창 특화 가공염의 경우 인지능력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접 섭취 뿐 아니라 알츠하이머병 예방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소재로의 활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이 지난 15일 람사르고창갯벌센터 회의실에서 '특화 열처리 가공염 개발 및 천일염 복합산업화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특히 고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천일염 융복합 산업화 방안'의 경제적 타당성도 입증됐다. 군은 천일염 열처리 가공시설 구축과

고창의 수산물·해양문화·지역 자원과의 결합을 통한 산업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칠보물테마유원지, 쾌적한 쉼터 제공위한 시설보수 실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해가 갈수록 인기를 더하고 있는 칠보 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을 올 여름에도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시설보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보수 사업은 시비 2억원이 투입되어 물놀이장 주변의 파손된 바닥보수, 바디슬라이드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탑승계단 그늘막 설치 등 총 5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계획용역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이 끝나면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칠보 물테마유원지는 아이물놀이장, 바다분수, 물테마전시관 등을 갖추고 여름철 방문객에게 물놀이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물놀이장에는 바디슬라이드,

워터터널, 워터드롭 등의 시설을 즐길 수 있으며, 유아용 물놀이장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어 유아와 함께 찾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다.

또한 물놀이장 입구에 있는 2층 규모의 물테마 체험전시관은 물의 순환과 이용에 관한 각종 사진과 기구들이 전시되어 물과 관련된 체험학습을 위해 찾는 이도 많다.

칠보 물테마유원지 인근에는 사적 제166호로 지정된 무성서원과 선비문화관을 느낄 수 있는 정읍선비문화관, 조선시대 양반가옥의 전형적인 99칸의 김평관고택, 태인면 소재지에 있는 호남 제일의 정자 피향정도 칠보 물테마유원지를 오가며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a cartoon bear mascot, images of wine bottles, and various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